

〈스위트 투스〉에 재현된 하이브리드 공동체와 면역의 상상력

오윤호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목 차〉

- I. 서론 : 포스트 아포칼립스 SF와 면역의 상상력
- II. ‘마지막 인류’의 극단적 자기면역
- III. 하이브리드 공동체와 대안공간 엘로스톤
- I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 투스〉 시즌 2에 다양하게 재현된 공동체와 면역의 상상력을 분석하여,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에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와 생명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 했다. ‘마지막 인류’의 극단적 면역화가 초래하는 윤리적 붕괴와 자기파괴적 결과를 비판하고, 하이브리드 공동체를 통해 포용과 연대에 기반한 대안적 가능성을 탐색했다. 이를 통해, 〈스위트 투스〉 시즌 2가 포스트 아포칼립스 SF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면역 패러다임과 공동체 윤리를 재인식하도록 한다는 점을 밝혔다.

주제어 : 면역, 〈스위트 투스〉, 포스트 아포칼립스, 생태 위기, 공동체 윤리, 생명 정치

1. 포스트 아포칼립스 SF와 면역의 상상력

인류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를 경험했다. 이 위기는 단순히 공중 보건 문제를 넘어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국가 간 상호의존성에 대한 재평가를 촉발했고, 동시에 국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통적인 공동체의 윤리와 가치관이 급격히 붕괴되고, 그 자리를 분열과 배제, 방역과 면역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이 대체하게 된 점이다. 예를 들어, 국가 간 경계가 강화되고 여행 제한이 일상화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접촉이 크게 감소했으며,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갈등이 발생하고, 개인의 건강 정보가 공적 영역에서 관리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동체 안전 사이의 균형이 새롭게 조정되어야 했다. 이는 단순히 코로나 위기 대응을 넘어, 그동안의 인류가 추구했던 인권과 자유, 국가 간 호혜교류라는 문화 혹은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 현대 인류의 생명 정치가 가진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사회 변화와 SF 장르가 오랫동안 탐구해 온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유사성이 존재한다.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체의 붕괴와 재구성, 석유나 백신과 같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갈등, 기존 권력 구조 및 윤리 체계의 해체 및 재구성 등 팬데믹 상황에서 목격된 현상들은 아포칼립스 SF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져 온 주제들과 겹치면서 SF 장르가 예견적 통찰력과 사회 비평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구를 뒤흔드는 큰 재앙과 그 이후에 공동체의 갈등을 그리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SF로 영화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 〈설국열차〉와 드라마 〈워킹데드〉를 예로 들 수 있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핵전쟁 후 황폐해진 세계에서 물, 기름, 식량 등 희소 자원을 둘러싼 폭력적 충돌과 독재자에 대한 저항, 그리고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도전을 그린다. 〈설국열차〉는 기후 재앙 후 기차 내에서 생겨나는 특권층과 빈민층 간의 극심한 생활 격차,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 이동의 자유 제한 등 계급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워킹데드〉는 좀비 아포칼립스 이후 생존 집단 간 대립, 리더십을 둘러싼 내부 갈등, 생존을 위한 도덕적 딜레마, 외부인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갈등 양상을 보여준다. 이 작품들은 재난 이후의 세계를 통해 인류 역사에 뿌리 깊은 계급적 갈등과 권력 구조를 재현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저항적 시도도 그려낸다.

이러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SF 작품들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경험을 반영하여 더욱 복잡하고 현실적인 공동체 문제와 면역 정치의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이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 투스〉다. 제프 러미어의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치명적인 H5G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인류의 몰살¹⁾이라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스위트 투스〉는 아포칼립스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든 다양한 공동체와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가 뒤섞여 반인 반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이브리드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H5G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양상과 그 기원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시즌 3까지 이어진다.

〈스위트 투스〉의 이러한 내용들은 신유물론의 비평적 주제와 맞닿아 있는데, 2020년대 이후 신유물론적 관점에서의 SF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신유물론은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철학적 흐름으로, 물질의 능동성과 창조성을 강조하며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비인간 존재자들과의 관계를 재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신유물론적 SF 연구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물질의 활력, 그리고 기술-생명-환경의 얽힘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 〈스위트 투스〉는 기존의 인간 중심적 공동체가 붕괴되고 새로운 가치의 공동체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하이브리드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보여준다. 〈스위트 투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공

1) 드라마에서는 바이러스가 확산된 후 인류의 98%가 죽었다.

동체들(‘마지막 인류’로 대표되는 극단적 인간중심주의 세력, 하이브리드 공동체,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는 집단들) 간의 갈등과 공존의 문제는 에스포지토가 제시한 ‘면역’과 ‘공동체’ 개념을 통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에스포지토의 이론을 김초엽 SF 소설 분석에 활용한 황지영²⁾은 김초엽 소설에 재현된 테라포밍과 리테라포밍 서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외계 행성과 지구에서 생명공동체를 둘러싼 면역의 생명 정치를 분석하였다. 이때, ‘공동체’와 ‘면역’을 함께 사유하며, 방어와 부정 중심의 근대적 면역 개념에서 벗어나 상호 침투와 생성의 영역으로 면역을 새롭게 사유한다. 표유진³⁾은 김초엽의 장편 SF 『지구 끝의 온실』과 『파견자들』을 에스포지토의 면역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팬데믹과 기후 위기 이후의 지구를 배경으로 폐쇄적 도시의 면역 정치와 이에 대항하는 오염된 생명들의 대안적 존재 방식을 분석하고, 근대적 면역화 패러다임의 폭력성을 넘어 이질성을 포용하고 상호 열림을 실현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분석하려고 하였다. 김주선⁴⁾은 김초엽의 소설에서 공동체는 비-기원, 책무와 선사, 고유성의 공동체, 열림 공동체로 나타난다고 보고, 에스포지토의 코뮤니타스와 임무니타스 개념을 중심으로 김초엽 소설이 이질적인 것과의 공존을 통해 탈고유화된 공동체를 재현하며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성을 탐문하며, 자연이나 지구와의 공생적 상상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초엽의 SF 소설을 에스포지토의 면역 정치 이론으로 분석한 이 연구들은 아포칼립스적 상황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갈등과 공존 가능성을 탐구한다는 의의가 있다. 에스포지토의 면역 정치 이론과 관련된 용어들(커뮤니타스, 임무니타스, 과잉 면역, 긍정적 면역 등)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보니, 문학작품의 해석 과정에서 미학적 양상과 제대

2) 황지영 (2023), 「테라포밍(Terra-Forming) 서사와 면역의 생명정치-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한국 SF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98, 국제어문학회, pp. 405~430.

3) 표유진 (2024), 「김초엽 장편소설에 나타난 면역정치와 전염으로서의 공동체 -『지구 끝의 온실』, 『파견자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100, 국제어문학회, pp. 199~223.

4) 김주선 (2024),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탈고유적 공동체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9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pp. 5~18.

로 부합할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논의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에스포지토의 면역과 공동체 개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근대적 면역 패러다임의 한계와 폭력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배제와 폐쇄가 아닌 포용과 개방의 윤리를 모색하며, 생태 위기 시대의 공동체 윤리와 공진화의 가능성을 열어준다.⁵⁾

본고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 투스〉 시즌 2에 재현된 다양한 공동체와 면역의 상상력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에 ‘〈스위트 투스〉 시즌 2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공동체들은 공동체와 면역의 문제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 둘째, 하이브리드 공동체의 등장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 그리고 생명 정치의 범위에 있어서 어떤 가능성을 발생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스위트 투스〉가 단순한 상업 드라마를 넘어 팬데믹 이후 현대 사회의 면역 문제와 공동체 윤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SF임을 밝히고자 한다.

II. ‘마지막 인류’의 극단적 자기면역

〈스위트 투스〉 시리즈는 H5G9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가 팬데믹을 경험하며 제각각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존기를 그리고 있다. 2021년에 공개된 시즌 1은 사슴볼을 가지고 태어난 거스가 자신을 자식처럼 돌봐주던 퍼바가 죽은 후 어머니(가족)를 찾기 위해 세상에 나오면서 겪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아포칼립스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 세계와 마주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는 붕괴되고, 하이브리드가 태어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현상들⁶⁾을 펼쳐놓

5) SF 작품들은 극단적 상황 속에서 인간 본성과 사회 구조의 본질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현실 세계의 잠재적 위험과 대안적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현재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으며, 시즌 1은 치명적인 H5G9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거스의 성장 이야기에 주목한다. 시즌 2의 경우는 보다 확장된 사회적 맥락에서 인류의 존속과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의 모습과 그들 사이의 극단적인 갈등 양상에 주목하며, 기존 인류와 하이브리드 간의 대립과 공존 가능성을 다양한 공동체들 간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윤리적 딜레마 속에서 펼쳐놓는다. 이와 함께, H5G9 바이러스의 기원을 찾고, 그 항원을 통해 백신을 만들고자 하는 싱 박사의 연구가 실패하는 과정을 재현하며, 인류 보존과 또 다른 생명으로서의 하이브리드가 연루된 면역 정치의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H5G9 바이러스로 인해 인류의 대부분이 사라진 후, 인간-동물 하이브리드 아이들이 태어나는 설정은 ‘면역 패러다임’의 붕괴와 새로운 생명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다. H5G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람들은 새끼손가락을 떨기 시작하며 죽어가며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킨다. 따라서 H5G9 바이러스를 진단하고 바이러스감염자를 격리하며, H5G9 바이러스 항체를 만드는 백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들은 인간의 멸종을 맞고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행위가 된다.

팬데믹으로 근대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마지막 인류’라는 무장 단체가 결성되고 이 백신 사업에 깊게 관여하게 되면서, 백신 개발을 둘러싸고 다양한 공동체가 갈등을 빚게 된다. 에스포지토는 근대 정치 체제가 ‘면역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대에 들어오면서 ‘면역 패러다임’이 공동체가 방어적 이뮤니타스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인식론적 틀”⁷⁾이라고 말한다. 면역 패러다임에서 정치 공동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면역 메커니즘을

6) 아내가 하이브리드를 낳아서 도망친 남편, 하이브리드 동생을 공권력에 빼앗긴 언니, 하이브리드를 악마화하며 죽이는 사람들과 ‘마지막 인류’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 하이브리드를 지키기 위해 동물 형상을 뒤집어 쓴 사람들과 하이브리드를 지키기 위해 동물원을 피난처로 만드는 사람들 등 아포칼립스를 경험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7) 이문수 (2018), 「인간존재와 열린공동체: 로베르토 에스포지토의 사상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5(2), p. 161.

작동시킨다. 예를 들어, 국가의 국경 통제, 이민 정책, 보건 정책 등이 이러한 면역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에스포지토는 ‘커뮤니타스(communitas)’⁸⁾와 ‘이뮤니타스(immunitas)’라는 두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공동체와 면역의 개념을 통해 면역의 정치 철학을 제안한다. “코뮤니타스”는 ‘무누스(munus)’에서 파생된 것으로, 법과 증여의 의미를 포함하지만, ‘이뮤니타스(immunitas)’는 구성원들에게 그런 책임을 면제”해준다.⁹⁾

시즌 2는 주인공 거스(Gus)와 하이브리드 아이들이 애벗(Abbot) 장군과 ‘마지막 인류(The Last Men)’에 의해 포로로 잡혀 동물원¹⁰⁾ 우리에게 갇힌 상황에서 시작된다. 시즌 1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인류가 동물-인간 하이브리드인 세상에서, 사슴뿔을 가진 소년 거스가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메인스토리이며, 닥터 싱 박사의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드는 스토리와 모든 동물이 사라진 동물원을 피난처로 삼아 하이브리드 아이들을 지켜주는 에이미의 스토리, 하이브리드를 사냥하는 ‘마지막 인류’ 스토리가 병렬적으로 전개된다. 시즌 2는 이 흩어져 있던, 혹은 서로 다른 경로로 전개되던 이야기들을 동물원이라는 공간에 전부 모이게 만든다. 애벗 장군이 이끄는 ‘마지막 인류’와 하이브리드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갈등 상황에 놓인 공동체라면, 하이브리드를 지키기 위해 결성된 ‘동물 군단’과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용병 ‘에어로드’, 헬렌 장·보스·더치가 이끄는 군벌들도 팬데믹 이후에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라 할 수 있

8) 로베르토 에스포지토 (2022), 『커뮤니타스: 공동체의 기원과 운명』, 윤병언 옮김, 크리터카, pp. 12~13.

9) 로베르토 에스포지토 (2022), 『이뮤니타스: 생명의 보호와 부정』, 윤병언 옮김, 크리터카, p. 13.

10) 동물원은 도시 속에서 인간들이 동물들을 구경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폐쇄적인 타자화 공간이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에이미에 의해 하이브리드 아이들이 생명을 지키고, 팬데믹으로 황폐화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피난 공간이었다. 그러나 애벗 장군이 이 하이브리드의 피난 공간인 동물원을 장악하면서 동물원은 하이브리드의 감옥이 되고 만다. 또한 닥터 싱 박사에 의해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고자 하는 실험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간성과 함께 동물원은 팬데믹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각양각색의 공동체가 모여들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핵심 공간이 된다.

다.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들의 충돌과 공존은 〈스위트 투스〉의 다른 시즌(1, 3)보다 시즌 2에서 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스위트 투스〉 시즌 2에서 ‘마지막 인류’는 H5G9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살아남은 인간들의 군사 집단으로, 제너럴 애벗의 지휘 아래 운영되는데,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하이브리드를 이용한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과 ‘에버그린’이라는 안전한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이 군대로 설정된 것은 면역 패러다임의 문화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군사적 은유¹¹⁾라 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원 입대를 받아서 이들을 훈련하여 적절한 전투에 투입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간다. 거스가 ‘빅맨’이라고 부르는 전직 미식축구 선수인 제프는 자신이 외면한 아내와 하이브리드 아이를 찾기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누가 우릴 구하겠습니까? 마지막 인류군, 오늘 입대하세요.”라는 문구가 쓰여진 ‘마지막 인류’의 전단지를 보고 자원 입대하게 된다. 군입대 지원자들이 “인류 먼저!”라는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군입대 홍보관은 “혼란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 인류를 구하기 위해” 입대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제프는 가족은 찾지 못하고, 하이브리드 아이들만 사냥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군대’를 나오게 된다.

‘마지막 인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간 중심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한다. 이들은 “인류 먼저!”라는 구호를 외치며 외부의 위협, 특히 바이러스와 하이브리드로부터 자신들을 철저히 분리하고 보호하려고 한다. 이들은 오직 인류의 생존이라는 목표만을 공유할 뿐, 구성원들 간의 진정한 연대나 의무의 공유는 추구하지 않는다. 이 공동체는 스스로의 정치적 비전과 인간과 다른 존재의 공생을 위한 윤리도덕적 기반을 만들기보다는, 다른 생물종과 다른 인간 공동체를 배제하고 억압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확대한다. 애벗 장군의 통치 권력은 공동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증폭된다.¹²⁾ 그 면역력 강화란 바이러스의 원인일지도 모르는 하이

11) 황임경 (2024), 「면역성과 취약성의 교차적 관점에서 본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생명/삶의 정치」, 『횡단인문학』, 제17호, 숙명인문학연구소, p. 77.

브리드 아이들을 납치하거나 죽임으로써, 스스로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획득하며 이루어진다. 또한 그들을 이용해 백신을 만들어 다른 인간들보다 생존의 우위에 서고자 한다. 시즌 2 3화에서 팩토리 타운 주민들에게 애벳 장군은 하이브리드가 인간을 몰살시켰다고 주장하며, 치료제가 만들어졌으니 “대붕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희망”이라고 선전선동하게 된다. 게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 주사를 놓아 일시적으로 병이 치료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인간들을 기만하고, 동물원을 탈출하여 ‘엘로스톤’에 안착한 하이브리드 아이들에게는 폭력적인 공격을 행하게 된다.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가 파괴된, 즉 의무에서 면제된(immunis) 공동체는 자신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적에게 폭력을 이전하면서만 자기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살아남을 수 있다.”¹³⁾라는 점에서, 이들이 하이브리드 아이들을 철저하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이유가 자기만이 살아남고자 하는 이기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커뮤니타스(communitas)’가 부재하는 것으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생명 윤리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 인류’의 행동은 인류를 구원하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오히려 지구적 삶의 윤리적 가치를 훼손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근대 정치 체제의 ‘면역 패러다임’이 극단화된 형태로, ‘마지막 인류’의 행동은 ‘자기면역 (autoimmunity)’의 위험을 명확히 보여준다.¹⁴⁾

〈스위트 투스〉 시즌 2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면역 정치의 양상은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하이브리드 실험이다. ‘마지막 인류’와 싱 박사는 하이브리드의 DNA를 이용해 H5G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마지막 인류’는 하이브리드 아이들을 납치하여 싱

12) 김성도 (2016), 「전염과 면역의 정치경제학서설: 바이러스의 기호인류학적 상상력」, 『영상문화』, 30호, 한국영상문화학회, p. 91.

13) 김명주 (2018), 「‘동일성의 공동체’의 불가능성에 관한 성찰 - 면역의 정치철학을 위한 모색」, 『인문과학』, 제114집, 연세대인문과학연구소, p. 195.

14) 강의혁 (2020), 「커뮤니티와 면역성 : 폭력에 대한 사유」, 『미국학논집』, 제52집, 한국아메리카학회, p. 131.

박사에게 실험 대상으로 제공하고, 싱 박사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다. 싱 박사의 아내 라니는 H5G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며, 박사가 제공하는 안정제로 일시적으로 증상을 억제하고 있다. 싱 박사는 아내를 완치시키고 행복한 삶을 되찾고자 하는 개인적 동기로 이 실험에 몰두한다. ‘마지막 인류’와 싱 박사는 하이브리드 실험을 중심에 두고 상호 이해관계에 기반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싱 박사의 실험 과정은 현대 생명정치의 복잡한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이브리드 아이들은 실험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철저한 감시와 통제 하에 놓여 있고, 그들의 신체는 정밀하게 측정되고, DNA 수준에서 분석되며, 백신 개발을 위해 반복적으로 실험된다. 이러한 실험은 생명을 단순히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환원시키는 현대 생명정치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H5G9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이브리드의 생명을 도구화하고 희생시키는 비윤리적 행위인 것이다.

계속 실패가 이어지던 싱 박사의 실험은 거스가 잡혀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싱박사는 거스가 하이브리드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인간과 하이브리드, 그리고 바이러스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거스가 다른 하이브리드와는 다르게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바이러스의 기원과 치료제 개발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싱 박사는 거스를 보라색 꽃¹⁵⁾이 가득한 방에 가두고 환각에 빠지게 만들어 거스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 마취 실험을 통해 거스 출생의 장소를 알게 된 싱 박사는 거스와 함께 포트 스미스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고, 거스가 포트 스미스 연구소의 ‘프로젝트 미드나이트 선’ 프로젝트를 통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프로젝트가 질리언 워싱턴 박사가 주도하는 수명 연장 요법을

15) H5G9 바이러스가 확산된 이후 새롭게 지구상에 등장한 식물로 이 꽃의 향을 맡으면 하이브리드 아이들이 환각에 빠진다.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생명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도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북극의 빙하 코어에서 찾은 “지구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생명체”¹⁶⁾를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때 닭 실험을 통해 태어난 존재가 ‘유전단위시리즈1’이라 분류된 거스였다. 이때 거스는 거투루드 밀러 박사에 의해 길러졌는데, 거스가 시즌 1에서 자신의 어머니라고 믿고 찾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밀러 박사다. 포트 스미스 연구소에서 ‘프로젝트 미드나이트 선’ 관련 실험 자료와 실험에 사용되었던 닭, 악어의 상체에 사람의 다리를 가진 로이를 데리고 동물원으로 돌아온 싱 박사는 닭의 알을 이용해 항원을 배양한 뒤 로이의 뼈 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주입해 항체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이 실험은 닭에게는 반응을 보였지만, 인간의 몸 속 H5G9 바이러스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실패로 끝나고 만다. 싱 박사의 실험은 하이브리드만 죽인 채 끝나고, 싱 박사의 아내 라니는 그런 남편을 설득해 실험의 진실을 폭로하자고 말하지만, 싱 박사는 진실을 감추고 에버그린 프로젝트를 위한 치료제 개발이라는 거짓 성과를 발표하게 된다. 싱 박사의 이러한 태도는 과학자로서의 윤리 의무도 망각하고, 인간의 지각 능력과 정서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를 희생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일 뿐이다.

‘마지막 인류’가 실행하려는 면역 정치의 또 다른 사례는 ‘에버그린 프로젝트’이다. 싱 박사의 실험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던 애벗 장군은 헬렌 장, 보스, 그리고 더치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공동체의 수장들을 불러, ‘에버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에버그린 프로젝트는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옛 주택 개발 단지를 이용해 바이러스로부터 면역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주택 단지 주변에 9미터 담장을 세워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헬렌 장이 가지고 있는 대붕과 이후 농업기술로 식량

16) 질리언 워싱턴 박사의 선조인 영국의 제임스 새커 박사는 1911년 근육퇴행질환을 앓고 있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북극을 탐험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100살 넘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원인을 조사하게 되었다. 이때 발견한 물질이 H5G9 바이러스의 기원이 된다. 이 내용은 〈스위트 투스〉 시즌 3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을 확보하고, 보스가 가지고 있는 발전소와 태양 전지판으로 전기를 공급하며, 더치가 에버그린 강으로부터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H5G9 바이러스로부터 가장 안전한 낙원을 만들어 “인류를 번성시킬 씨앗”이 되고자 하는 계획이다. ‘마지막 인류’를 포함 이 세 공동체에서 각각 150명씩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 이들이 치료제까지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서는 이들이 인류 최후의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나 싱 박사의 치료제가 거짓임이 들통나고, 거스가 “우리들은 당신들의 질병이 아니에요.”라고 외치고 에이미가 싱 박사의 실험실을 불태우게 되면서 치료제도 유토피아도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에버그린 프로젝트’는 바이러스로부터의 완전한 격리와 자급자족을 통해 인류의 안전을 추구하지만, 이 역시 배제와 차별에 기반한 폐쇄적 공동체 모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에스포지토는 이러한 면역 작용이 과도해지면 자기면역 질환처럼 공동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이를 ‘자기면역(autoimmunity)’의 위협으로 설명하며, 극단적 민족주의나 폐쇄적 공동체 정책이 결국 공동체의 생명력을 약화시킨다고 보았다. 〈스위트 투스〉에서도 ‘마지막 인류’는 하이브리드 아이들을 찾아내 무참하게 살해하고, 다른 공동체를 공격하면서 과도한 자기면역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스위트 투스〉 시즌 2에서 등장하는 에어 로드와 헬렌 장의 세력은 또 다른 형태의 대안적 공동체를 보여준다. 에어 로드는 비행선을 타고 다니는 집단으로, 지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키는 독특한 생존 전략을 취한다. 그러나 에어 로드는 완전한 고립을 선택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른 생존자들과 이해득실에 따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배제와 고립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나타낸다. 한편, 헬렌 장의 세력은 권력 확보와 새로운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다. 이들은 ‘에버그린’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 체제를 구축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이브리드나 인간을 학살하면서 생명의 윤리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인다. 헬렌 장 세력의 경우, 시즌 3에

가게 되면 드라마 전체의 악당으로 설정되어, 바이러스의 힘에 대한 근원적 욕망 때문에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스위트 투스〉 시즌 2에 재현된 공동체들의 갈등 서사는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한다. 단순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생존 이야기를 넘어, 현대 사회의 면역 패러다임과 공동체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마지막 인류’로 대표되는 극단적 인간중심주의와 배타적 면역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고,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하이브리드 실험과 ‘에버그린 프로젝트’는 팬데믹 시대의 생명정치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를 잘 보여준다.

III. 하이브리드 공동체와 대안공간 엘로스턴

〈스위트 투스〉 시즌 2에서 거스와 다른 하이브리드들이 살아남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은 팬데믹 이후 사람들이 보여주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보게 만든다. 〈스위트 투스〉 속 하이브리드는 인간과 동물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 바이러스와 인간 유전자 사이의 면역 작용으로 생겨난 새로운 생물 종으로 팬데믹의 원인이자 결과로 받아들여지는 존재다. 하이브리드는 그 존재 자체가 H5G9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된 개체다. 드라마 속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에서 하이브리드는 인간이 바이러스에 면역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일 수 있었으나 인간들은 하이브리드를 재앙으로 인식했다. H5G9 바이러스는 태아의 유전자를 뚫고 들어가 변이를 일으키고, 잠재되어 있던 동물적 유전자 특성을 발현시킨다. 하이브리드는 인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화의 과정에서 소멸했었던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진화 과정에서 발현된) 동물의 유전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인간의 유전자와 동물의 유전자가 뒤섞인 것이 아니라, 인간과 H5G9 바이러스가 서로 면역 작용을 일으켜 서로의 유전적 특질을 변화시킨 결과로 탄생한 것이다. 에스포지토에 의하면 면역화

는 개별 신체이든 집합적 정치체이든 상관없이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경계를 뚫고 외부에서 침입하여 균형을 깨뜨리는 것을 전제한다.¹⁷⁾ H5G9 바이러스에 감염된 태아는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기보다는 바이러스 작용을 통해 동물적 특성을 발현시키면서 생명 그 자체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거스의 경우, 그가 가진 사슴 특성은 단순한 외형적 특징을 넘어 그의 정체성과 능력의 핵심을 이룬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슴뿔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생물학적인 부모없이 실험실에서 배양되어 태어났으면서도 그 어떤 인간보다도 인간 세계(어머니, 가족 등)를 동경하며, 인간 이상의 감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의 뛰어난 후각과 청각, 자연과의 교감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혼종적 특성은 거스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거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스위트 투스〉는 생물학적 종의 차이를 넘어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 기존의 사회 구조를 넘어서는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하이브리드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는 인간과 하이브리드가 함께 살아가는 대안 가족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자신을 보호하며 길러주던 퍼바가 죽은 이후 거스는 사진 한 장 남겨진 어머니를 찾아 옐로스톤을 떠나 인간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거스와 같은 하이브리드는 유표화된 바이러스 그 자체다. 기존의 공동체(인간 사회)는 그의 사슴뿔을 인정하지 못할뿐더러, 바이러스처럼 철저히 배제하거나 죽이려고까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스는 자신의 낙원에서 추방당한 후 인간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로 상처받으며 인간과 하이브리드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다. 하지만 거스가 가진 특유의 낙천적 태도는 곧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대안 가족을 찾게 만드는데, 바로 제프가 그 시작이다. 팬데믹 이전에 유명한

17) 로베르토 에스포지토 (2022), 『임무니타스: 생명의 보호와 부정』, 윤병언(역), 크리티카, p. 8.

미식축구 선수였던 제프는 팬데믹이 막 시작되고 나서 아내가 낳은 하이브리드를 보고 도망치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도망쳤던 것을 후회하며, 그들을 찾는 과정에서 거스를 만나게 된다. 자신이 외면했던 하이브리드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거스에 대한 동정심으로 처음에는 거스를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만, 점차 그를 동등한 인격체이자 동료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관계는 제프가 거스를 동물원에서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시즌2), 북극까지 가서 그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이야기(시즌3)로 이어진다. <스위트 투스>에서 하이브리드와의 교감을 통해 대안 가족을 형성하는 또다른 사람으로 동물원에서 하이브리드를 보호하던 에이미와 동물군대의 리더인 베키가 있다. 에이미는 폐허가 된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던 하이브리드 아이들을 동물원에 숨겨주며 보호해주며, 그 아이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베키는 어린 시절 하이브리드인 여동생을 인간들에게 빼앗긴 후 그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동물군대’라는 명칭의 공동체를 만들어 하이브리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스위트 투스>는 하이브리드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립적 관계뿐만 아니라, 협력적 관계도 잘 표현하고 있다. 에이미와 제프는 하이브리드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하이브리드가 동물원에 감금되었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이브리드 아이들을 구하려는 에이미와 제퍼드가 보여주는 구출 작전은 ‘마지막 인류’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펼쳐진다. 베키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마지막 인류’의 군대에 입대해 하이브리드 아이들이 감금되어 있는 동물원에 들어가려고 한다. 특별한 준비없이 이루어진 1차 구출 작전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에어 로드와의 공조를 통해 2차 습격을 한 후에 하이브리드 아이들을 구출하게 된다. 에이미와 제프가 거스와 하이브리드 아이들을 구하려는 활동은 ‘커뮤니타스’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인간과 하이브리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공동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을 모색하며,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에이미는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감염되어 죽어가면서도, 하이브리드 아이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라고 이야기하고, 제프 역시 시즌 3에서 거스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다. 인간인 에이미와 제프는 팬데믹 이후 지구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과 하이브리드, 식물 변종들의 공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들이 하이브리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바이러스가 만연된 지구 위에서 지구적인 공존의 윤리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스위트 투스〉 시즌 2에는 인간과 하이브리드 사이의 대안 가족 형태의 공동체와 함께, 하이브리드 아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등장한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폭력적인 인간들에게 쫓기며, 실험 대상이 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박해를 경험한 하이브리드 아이들이 ‘마지막 인류’의 탄압과 실험에 저항하며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시즌 1에서 자신만이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했던 거스는 시즌 2에 동물원에 갇히게 되면서, 다양한 모습의 하이브리드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람처럼 말을 하고 돼지코를 가진 웬디, 악어인 상반신을 가지고 있는 피터, 두더지를 닮은 보비 등 다양한 동물적 형상과 인간의 특성이 뒤섞인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거스는 자신의 고유성을 인정받으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깨닫게 된다. 제프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동물원을 탈출하기 위해 다른 하이브리드 아이들을 돕고, 그들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한다.

거스와 웬디는 사람처럼 말을 잘하는 능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고, 보비는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찾기 위해 땅을 파기도 한다. 탈출하는 과정에서는 탈출이 발각된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거스는 ‘마지막 인류’에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켜 다른 아이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모습은 개인의 고유한 능력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며, 개인과 공동체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개인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공유하는 하이브리드 공동체로 성장한 것이다.

하이브리드 공동체는 외부 위협에 대해 배제나 폭력이 아닌 포용과 긍정의 방식으로 대응하며, 서로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연민과 사랑을 중심으로 강한 연대감을 형성한다. 이들은 생물학적 차이를 차별과 편견의 출발점이 아닌 다양한 종의 조화와 화합으로 이겨낸다.

또한 인간과 하이브리드 아이들의 공동체는 지속적인 변화와 적응의 과정을 보여준다. 황폐화된 도시에서 구조된 이 아이들은 지옥(실험실)과도 같은 동물원에서 탈출하여, 대안 공간인 옐로스톤으로 가게 된다. 옐로스톤은 거스와 퍼바가 팬데믹 이후에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10년을 살았던 곳이다. ‘마지막 인류’는 옐로스톤까지 하이브리드를 쫓아와 공격하지만, 거스와 에이미, 제프의 철저한 준비 때문에 그들의 공격은 결국 패배하고 만다. 〈스위트 투스〉 시즌 2는 인간 세상을 디스토피아로 그리고 있던 시즌 1과 달리, 다양한 공동체들의 유토피아적 지향을 통해 이상적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마지막 인류’가 꿈꾸는 ‘에버그린 프로젝트’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인간만의 낙원을 추구하지만, 이는 하이브리드를 배제하는 극단적 면역 정치의 한계를 드러낸다. 반면 하이브리드 아이들과 그들을 돕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옐로스톤 공동체는 종의 경계를 넘어선 포용과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인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여주는 이 공동체 활동은 생명의 공감과 연대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구적 윤리를 추구하게 된다. 이들은 기존의 인간-동물 이분법을 무너뜨리며, 생명 정치의 범위를 인간을 넘어 모든 생명체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즌 1에 비해 크게 강조되지는 않지만, 인간과 하이브리드가 만들어내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도시와 자연은 〈스위트 투스〉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양상을 대표하는 공간, 또다른 의미에서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폐허가 된 도시와 회복되는 자연의 모습은 중요한 생태학적 의미를 지니며, 인간 문명의 붕괴와 자연의 회복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현대 사회의 생태 위기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은 인간 중심적 문명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한때 인간의 기술과 문명의 정점을 상징하던 도시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진 모습은, 현대 사회의 ‘면역 패러다임’의 한계를 보여준다. 즉,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히 보호하려는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 인간의 부재 속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자연의 모습은 자연의 강인한 회복력을 보여준다. 도시를 뒤덮는 식물들, 거리를 활보하는 동물들의 모습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자연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연은 외부의 위협(여기서는 인간의 과도한 개발)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인간의 과도한 개발과 자연 착취가 결국 인간 자신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게 한다.

〈스위트 투스〉 시즌 2에서 하이브리드 공동체와 옐로스톤은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한다. 하이브리드 아이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능력을 활용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들과 에이미, 제프 같은 인간들이 형성하는 대안 가족은 종의 경계를 넘어선 연대와 돌봄의 윤리를 구현한다. 옐로스톤은 ‘마지막 인류’의 폐쇄적 ‘에버그린 프로젝트’와 대비되며, 인간과 하이브리드가 공존하는 대안적 공간으로 재현되었다.

IV. 결론

이상 〈스위트 투스〉 시즌 2를 분석하며 H5G9 바이러스로 인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를 배경으로, 다양한 공동체의 갈등과 공존을 통해 면역의 상상력을 탐구했다. 드라마 〈스위트 투스〉 시즌 2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SF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면역 패러다임과 공동체 윤리에 대한 문제적 시각을 제안한다.

드라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공동체는 ‘마지막 인류’로, 이들은 극단적인 인간중심주의와 배타적 면역 정치를 대표한다. ‘마지막 인류’는 하이브리드를 위협한 바이러스 그 자체로 다루며, 이들을 이용한 백신 개발과 ‘에버그린 프로젝트’라는 폐쇄적 유토피아 건설을 추구한다. 이는 에스포지토가 경고한 ‘자기면역’의 위험을 명확히 보여주는데, 과도한 면역 반응이 결국 공동체 자체를 위협하는 것처럼, ‘마지막 인류’의 극단적인 배제 정책은 오히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반면, 하이브리드 공동체와 이들을 돕는 인간들은 ‘커뮤니타스’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거스를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아이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능력을 활용하며 협력하고 에이미와 제프, 베키 같은 인간들은 하이브리드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려 노력한다. 시즌 2의 결말에서 하이브리드 아이들이 엘로스톤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대안적 유토피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인간과 하이브리드,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상상하게 한다.

또한 〈스위트 투스〉는 바이러스의 기원과 치료제 개발이라는 과학적 서사를 통해 생명 윤리의 문제도 제기한다. 싱 박사의 실험은 인간 생존을 위해 하이브리드를 희생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보여주며, 과학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책임 사이의 균형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스위트 투스〉 시즌 2는 면역과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제시하며,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선 포괄적인 생명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문명의 이분법을 넘어선 배제와 차별이 아닌 포용과 공존의 윤리를 모색하며,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와 생태계 붕괴의 시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 강의혁 (2020), 「커뮤니티와 번역성 : 폭력에 대한 사유」, 『미국학논집』, 제52집, 한국 아메리카학회, pp. 117 ~ 139.
- 김명주 (2018), 「‘동일성의 공동체’의 불가능성에 관한 성찰 - 번역의 정치철학을 위한 모색」, 『인문과학』, 제114집, 연세대인문과학연구소, pp. 177~204.
- 김성도 (2016), 「전염과 번역의 정치경제학서설: 바이러스의 기호인류학적 상상력」, 『영상문화』, 30호, 한국영상문화학회, pp. 77~100.
- 김주선 (2024),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탈고유적 공동체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9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pp. 5~18.
- 로베르토 에스포지토 (2022), 『임무니타스: 생명의 보호와 부정』, 윤병언 옮김, 크리티카.
- _____ 『커뮤니타스: 공동체의 기원과 운명』, 윤병언 옮김, 크리티카.
- 미셸 푸코, 『생명 정치의 탄생: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1978-79년』, 이규원 옮김, 난장, 2010.
- 이문수 (2018), 「인간존재와 열린공동체: 로베르토 에스포지토의 사상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5(2), 한양대학교평화연구소, pp. 147~178.
- 표유진 (2024), 「김초엽 장편소설에 나타난 번역정치와 전염으로서의 공동체 -『지구 끝의 온실』, 『파견자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100권, 국제어문학회, pp. 199~223.
- 황임경 (2024), 「번역성과 취약성의 교차적 관점에서 본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생명/삶의 정치」, 『횡단인문학』, 제17호, 숙명인문학연구소, pp. 71~100.
- 황지영 (2023), 「테라포밍(Terra-Forming) 서사와 번역의 생명정치-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한국 SF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98, 국제어문학회, pp. 405~430.

Abstract

Hybrid Community and Imagination of Immunity *Represented in Sweet Tooth*

Oh, Youn-ho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paper analyzes the various imaginaries of community and immunity in season 2 of the Netflix drama *Sweet Tooth* to find new possibilities for human-nonhuman relations and biopolitics in the post-apocalyptic era. Critiquing the ethical collapse and self-destructive consequences of the extreme immunization of the “last of humanity” and exploring alternative possibilities based on inclusion and solidarity through the community of hybrid, the researcher found that *Sweet Tooth* Season 2 continues the tradition of post-apocalyptic science fiction, but also rethinks the immunization paradigm and community ethics in contemporary society.

Keywords: : Immunity, *Sweet Tooth*, Post-Apocalypse, Ecological Crisis, Community Ethics, Biopolitics.

논문 투고일: 2024년 9월 14일 심사 완료일: 2024년 10월 8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0월 9일
--